

#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제266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유명희 의원은 '남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박미순 의원은 '통장 치우개선과 수당 현실화 건의'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어졌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했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박구슬 의원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가격인하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



제266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 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남구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의 구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기회의 운영시기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원안가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수립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찬성의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2018년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받습니다

부산 남구의회에서는 구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의 불합리한 행정진행사항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접수처

—남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snamgu.go.kr] (참여광주) - 의회에 바란다)  
—남구의회 의원

### ■접수기간

2018. 10. 25. ~ 11. 13. (20일간)  
■문의처  
남구 의회사무국 ☎607-6521~6

## 사진으로 보는 의정소식



남구의회 복지시설 방문

남구의회 의원들은 민중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지난 9월 19일 새빛기독보육원, 참사랑실버홈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의 고충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남구의회 의정연수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8대 남구의회 의정활동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부산 구·군의정협의회 참석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아래 왼쪽 첫째)은 지난 11일 해운대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시 구·군의정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신규 공무원 의회 체험

남구의회는 지난 17일 신규 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 남구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남구 의회사무국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 (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유명희 의원  
(비례대표)

본 의원은 「남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남구는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탐방로인 해파랑길과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과 2005년 APEC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평화공원은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방문 실적을 보면,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2018년 상반기 59만 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매일 3000명 이상 방문한 셈인데, 이는 지난 2014년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UN평화기념관 15만 여 명, 부산박물관 74만여 명 등

남구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광은 세계 최대 단일 산업인 동시에 지식정보산업, 환경산업 등과 함께 21세기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은 3차 산업의 꽃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 등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자원소모율이 낮은 무공해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은 유행이든 무형이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의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구를 찾는 관광객은 관광지를 한번 둘러보고 끝나는 '통과형 관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즉 지역특산물의 판매 증진,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멋진 남구의 미래를 위해 관광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장기플랜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증축 예정인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영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이기대공원내 사유지인 '어울마당터'를 구청이 매입하여 '휴식관광센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휴식공간과 관광시설이 결합된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2020년 공영 일몰제를 앞두고 예산 확보 등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수부의 용호부두 일대 재개발사업시, 시민 친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재개발사업 계획에는 휴양기능, 수변카페, 유스호텔, 요트경기장 등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체류형 관광' 유치가 가능해지며 해운대~수영요트경기장~광안리~이기대~오륙도~신선대로 이어지는 부산 해안관광의 축이 남구가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박미순 의원  
(용호1)

## 통장 치우개선과 수당 현실화 시급

민통록법상 주민등록 신고의 확인자 위치를 겸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보수는 2004년 월 기본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4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33%를 넘어선 현재까지도 인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수당 20만원은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기준 2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소한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통장의 치우개선과 수당 현실화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기본 수당을 최소 50%이상을 인상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정수당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관계없이 자체 개선 가능한 회의장

석 수당 등 통장 치우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장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7년간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갖 갖은 일을 마다않고 일해오신 통장들의 처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장을 뽑지 못해 수개월간 공모 플래카드를 걸어 두는 일이 더 이상 우리 남구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청과 협회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파수꾼인 통장님들의 치우개선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하시는 366명의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내려야



박구슬 의원  
(대연 1·4·6)

저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2년 8월 1일, 부산시의 「20리터 이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재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14개 구가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시 구·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는 어느 구에서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

현재 부산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가격은 5리터의 경우는 220원, 10리터는 430원, 20리터는 850원입니다. 서울은 130원, 250원, 400원이며, 부산의 5리터 10리터 20리터 봉투 가격의 57%에서 59% 수준입니다. 대전은 170원, 330원, 660원, 대구는 150원, 290원, 560원으로 부산의 종량제 봉투가

가격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최대 170%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규격의 봉투가격 또한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를 최소화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팔아 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우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여러 주변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자치구에서는 5리터 봉투부터 100리터 봉투까지 가격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강서와 기장을 제외한 14개 구에서 상호간 봉투를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만 강조하고 있을뿐 봉투 가격이 물가와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저는 타 대도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 책정은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5리터와 10리터의 가격부터 10%씩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타 대도시 수준으로 점진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에는 부산시와 타 자치구와의 관계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줄 수 있고, 쓰레기 사용량이 많은 영아보육기구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